

다구를 찾아서

9 차맷돌



찾가루가 연기처럼 피어난다

모든 문화와 문물이 그러하듯이 당대에서 송대로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구도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니다. 단차를 갈아서 가루차를 만드는 다연(茶碾)을 봐도 그러하다. 휘종과 유송년, 심안 노인의 글·그림은 다연에서 다마(茶磨)·차맷돌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휘종(1082-1135)은 <대관다론>에서 다연의 재질과 모양새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은 은으로 만든 것이 제일 좋고 속철로 만든 것이 그 다음으로 좋다. 생철로 만든 것은 두드러 제련한 것이 아니면 쇠가루가 (찾가루) 뜰에 끼게 돼 차의 색을 해치는 것이 더욱 심하다. 연을 만들 때는 몸통이 깊고 커야 하며 등근 바퀴는 예리하고 좁아야 한다. 몸통이 깊고 크면 바닥이 평평해 끼지 않고 차가 항상 모이게 된다. 등근 바퀴가 예리하고 좁으면 몸통 안에서 움직이되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다. (중략) 연을 갈 때는 반드시 힘을 주어 빨리하고 오래 하지 않아야 한다. 철이 차색을 해칠까 두렵기 때문이다(碾以銀爲上熟鐵次之生鐵者非拘揀錫磨所成間有黑屑藏于隙穴害茶之色尤甚凡碾爲製精欲深而峻輪欲銳而薄槽深而峻則底有準而茶常聚輪銳而薄則運邊中而槽不礙(中略)碾必力而速不欲久恐鐵之害色.)”



전송 유송년 연다도 부분(傳宋 劉松年 搗茶圖 部分).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높이 25cm, 다구상단 지름 19.3cm, 다구하단 지름 35.7cm.

이 글에서의 다연(茶碾)은 당대(唐代) 법문사에서 출토된 다연자(茶碾子)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차를 가루 낼 때 차색이 변하는 것을 염려해 짧은 시간 안에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연의 재질 또한 차의 변색에 영향을 적는 것을 택했다. 휘종이 얼마나 흰색의 차색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휘종보다 약 50년 후의 인물, 유송년(劉松年)이 그린 ‘연다도(搗茶圖)’를 보면 다연이 아닌 돌로 만든 커다란 맷돌로 차를 갈고 있다. 이는 다연이라고보다 다마(茶磨)·차맷돌로 부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연다도에서는 두 사람이 차를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은 차맷돌에 단차를 갈아서 찾가루를 내고 있다. 차맷돌의 아래쪽으로 찾가루가 떨어지면서 멍게듯 연기처럼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뒤로는 또 한사람이 탁자 위에서 주자(注子)를 들고 차를 달이고 있다. 탁자 위에는 격불할 때 필요한 다선

(茶笕, 청자차잔, 주철(朱漆한 다탁(茶托), 가루 낸 차를 보관하는 합(盪), 수우(水盂), 개완(蓋碗) 등의 다기(茶器)가 놓여 있다. 탁자 앞의 풍로 위에는 손잡이가 있는 물 끓이는 솥이 얹혀 있어 금방이라도 뜨거운 차 한잔을 마실 수 있을 듯 한 분위기다.

유송년의 생몰연대는 확실하지 않고 다만 남송의 효종 순희(孝宗 淳熙)에서 영종 가정년간(寧宗 嘉定年間, 1174-1224)에 활동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남송대의 심안 노인(審安老人)이 지은 <다구도찬(茶具圖贊)>을 살펴보면, 차를 가는 다구는 유송년의 그림에서 보이는 차맷돌과 같은 모습이다. 심안 노인은 실제 이름과 생몰연대 등이 알려진 것이 없다. <다구도찬>은 육우 <다경> 속 차를 달이는 24가지 다구(茶具) 중에서 12가지를 12 선생으로 의인화해 글과 그림을 함께 실어놓은 책이다. 여기에서 심안 노인은 다마를 ‘석전운(石轉運)’이라 부르면서 이름은 석전(鑿齒), 자는 천행(遷行), 아호는 향옥은군(香屋隱君)이라 칭했다. 이름에서 보듯이 차맷돌은 돌로 만들었고 곡식을 찧을 때 쓰이는 것처럼 이가 딱 들어맞아서 차를 잘 갈고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빠르게 갈 수도 있었던 듯하다.

은이나 쇠로 만든 다연에서 돌로 만든 차맷돌로 접차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손으로 등근 바퀴의 축을 힘주어 앞뒤로 움직여서 가루내는 다연보다 손잡이를 잡고 돌의 무게를 이용해 한 방향으로만 돌리는 차맷돌이 사용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등근 바퀴의 모서리만을 이용하는 다연보다 넓은 면적을 고루 사용하는 차맷돌이 단차를 곱고 균일하게 가루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고지현 지정문화재(高知縣指定文化財인) 차맷돌이다. 일본에서는 다구(茶臼)로 부르는데, 홋강사(吸江寺)에 소장돼 있다. 다구 상단의 재질은 돌인데, 측면에 ‘토우국에서 시주한 오대산 홋강암의 다구이다. 정화오년 기축년 십일월 오일(施入土佐國五臺山 吸江庵白也 貞和五年己丑十一月廿五日)’이라고 새겨져 있다. 정화오년 기축년은 서기 1349년이다. 유송년의 연다도와 심안노인의 <다구도찬> 속 차맷돌의 실제 유물이다.

백기란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30 다비(荼毘) 하던 날



마지막 인사는 사흘만 했고, 남기고갈 말은 오래전에 써두었다. 남은 것은 빈 법구뿐. 법구는 관을 쓰지 않았다. 꽃상여도 없었다. 쓰던 평상 위에, 가사 한 벌 덮고 다비하러 간다. 만장도 없이 간다. 고갯길은 슬펐고 정근 소리는 무겁게 돌아왔다. 슬픔에 젖은 불이 법구를 태웠다.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빈 몸이건만 한 때의 인연이 그 이름을 끝내 잊지 못했다. 수천의 눈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길을 바라보고, 수천의 귀는 마지막 설법을 기다렸다. 생각

이 끊어진 자리, 생사가 끊어진 자리에 설법은 따로 없었다. 흰 연기만이 피어올랐다.

달빛 속에서 법구는 식어갔고, 스님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스님이 사랑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다. 사랑했던 책들, 사랑했던 인연들, 사랑했던 부처님이 남아 있었다. 스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문수보살을 만나다 (草衣文殊)

삼화는 송나라 때 태위 여혜경(呂惠卿)이 오대산에 유람 갔다가 동자를 만나 문답을 나누는 장면을 판각하고 있다. 동자가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자 등에 걸터앉아 은은하게 구름 속에 나타난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다.

여혜경은 초의 동자에게 문수보살을 만나고자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일찍이 <화엄경>을 봤더니 대교의 뜻이 깊고 내용이 넓더라. 보살이 이 뜻을 열고 밝혀 핵심을 풀고, 이것을 전석(轉席)해 세간에 유행하게 되면 어두운 밤의 세계가 갑자기 광명을 얻게 되고 큰마음을 지닌 사람은 곧 깨달음이 열릴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묘하신 뜻은 사물의 이치에 잘 순응하는 것으로 간단하고 쉬우며 명백합니다. 선대의 큰스님들이 주석한 내용을 보면 해득(解得)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지품’ 한 품의 해석문은 몇 장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넝쿨이 생겨, 주석된 책만 100권에 가깝습니다. 성인의 뜻과는 더욱 멀어졌으니 이는 대도를 파쇄하는 행위입니다.”

“동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히 전대 선배들을 꾸짖을 수 있겠는가?”

“관인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곳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문수보살의 경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대들에게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일용생활에 헛갈리지 않게 하니 이것이 진실로 문수보살일 따름입니다. 어찌 범인의 정으로 어지럽게 간여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태위는 앞서 말한 것의 잘못을 누우치고 곧 머리를 조아리며 동자 앞에 예배를 들었다. 절을 하고 일어서 보니, 동자는 보살의 형체로 나타나 사자의 등에 걸터앉아 구름 속으로 숨어 버렸다.

태위는 그 일을 안타까워했다. 집안사람들이 까닭을 물으니 태위는 “나는 정성을 다해 허물을 누우치고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동자가 출연하니 나타나 “어찌 상에 주착하는가?”라고 꾸짖었다. 이때 태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문수보살의 진실한 얼굴을 보게 하고자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초의문수(草衣文殊).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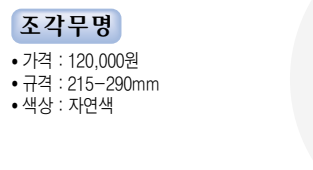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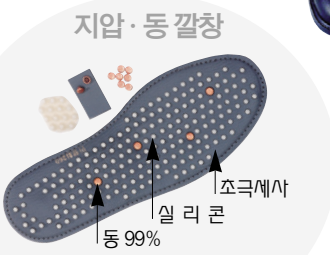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동갈창
동 99% 실리콘
조각메사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지압동갈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0mm
• 색상 : 검정, 회색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0mm
• 색상 : 검정, 회색

문의 및 주문전화: 02) 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NAVER
종류 검색 | 인명화 |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 경쟁업체 보러오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 불자용수저 “다라니” 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도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다라니수저” 출시기념 공장도가 시판

■ 사찰에는보시·불자가정에는 선물!

사찰 공양실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다. 공양실의 첫 번째 얼굴이 수저인데 대부분 공양실 수저를 보면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가 오래될 굵고 달아 보기도 깔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팅이 벗겨지면 스텐을 만들 때에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며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교체한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양”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음”자를 넣었다.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3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을 새겨 제작해 드릴 수 있으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 있다. 다라니수저는 set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출시기념으로 공장도가격 set당 1,500원의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50set, 100set 단위로 전화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믿음과 신뢰의 기업 **고영산업**